

**The Gospel of Mark**

Sermon 45 – Sermon Notes

Title: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Scripture: Mark 10:23-31

Date preached: July 16th 2023

**Scripture: Mark 10:23-31**

23 Then Jesus looked around and said to His disciples, “How hard it is for those who have riches to enter the kingdom of God!” 24 And the disciples were astonished at His words. But Jesus answered again and said to them, “Children, how hard it is for those who trust in riches to enter the kingdom of God! 25 It is easier for a camel to go through the eye of a needle than for a rich man to enter the kingdom of God.”

26 And they were greatly astonished, saying among themselves, “Who then can be saved?”

27 But Jesus looked at them and said, “With men *it is* impossible, but not with God; for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28 Then Peter began to say to Him, “See, we have left all and followed You.”

29 So Jesus answered and said, “Assuredly, I say to you, there is no one who has left house or brothers or sisters or father or mother or wife or children or lands, for My sake and the gospel’s, 30 who shall not receive a hundredfold now in this time—houses and brothers and sisters and mothers and children and lands, with persecutions—and in the age to come, eternal life. 31 But many *who are* first will be last, and the last first.”

23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재물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정말 어렵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24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라자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정말 어렵다. 25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 26 그러자 제자들은 더욱 놀라며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하고 수군거렸습니다. 27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시며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28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하자.

29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30 이 세상에서 그 모든 것을 백 배나 받고 아울러 핍박도 받을 것이며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31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을 것이다.”

**Review**

Before we look at today's passage of scripture let us review what we looked at last time.

You will I hope remember that we looked at the interaction the Lord Jesus had with the rich young ruler. This incident though appearing brief is highly significant.

It features in all three synoptic gospels. Its great significance lies in what it teaches us about salvation. As I mentioned last time all the religions we find today are united by one common thread.

Although the ceremonies, rituals, beliefs and cultures vary all world religions share one thing in common. They are united in their belief that it is necessary for human beings to do something in order to be saved.

This "something" may be following a set of rules or traditions. It may be in worshipping in a particular way, or in a particular place. It often takes root in the idea that we will be rewarded for our good works or efforts here on earth. We see this for example in Islam, and in the precept of "karma" in Buddhism and Hinduism. Christianity is of course very different. Only Christianity

teaches that our own efforts will never be good enough. We can do nothing to earn our own salvation, it is God, and God alone who saves. Let us briefly review last week's teaching.

Whilst walking somewhere in the region of Perea the Lord Jesus is approached by a young man. He is commonly referred to as the rich young ruler. As I noted last week in order to glean this information we need to examine the accounts in both Matthew and Luke. He was wealthy, with many possessions and under the age of 40. We are also told that he was a ruler. This probably means that he was a synagogue lay leader (an elder). That a man of his relatively young age held such a position suggests that he was an impressive individual, and that there was much to commend him. When he sees Jesus he runs up and falls at the Lord's feet. Such an approach would have been quite surprising for those surrounding Jesus. It was considered demeaning or shameful for rich men to run in the ancient world. But it demonstrates his eager desire to find Jesus and ask Him an important question.

He wants to know what he must do in order to inherit eternal life. Or to put it more simply he wants to know what he must do to be saved. His question is as follows;

**“Good Teacher, what shall I do that I may inherit eternal life?”**

There are few more important questions we can ask in life. The big questions in life are; Why am I here? What happens to me when I die? What must I do to be saved? So it's a good question, and Jesus is the perfect person to ask. However there was a mistake in the man's question. His mistake lay in thinking that he was required to do something in order to be saved. He of course reflected the Judaism of his day. It was the belief that God looked favorably upon those who strictly followed the law, both the law of Moses and the oral traditions of the Pharisees. In effect that God saved those who had earned through their efforts His mercy.

The Lord Jesus is a little surprised at the way the man addresses Him. No rabbi was ever addressed as being "good" because this adjective was used exclusively to refer to God. Only God was good. No human being was without sin, therefore to call a person "good" was to imply that they were God. The young man was of course right, he was addressing God. But Jesus calls him out. He doesn't know who Jesus is so why is he calling Him good. The Lord then proceeds to direct the man to the second table of commandments (laws) that God gave to Moses. The first set (1 to 4) focus on the vertical. They tell us how we are to relate to God. The second half of the ten commands (5-10) focus on the horizontal plane. They detail how we should deal, or interact with our fellow human beings.

The young man is encouraged by Jesus' words. He considered himself since the age of 13 to have been loyal and faithful in carefully following the laws. It's very doubtful that he had heard the Sermon on the Mount.

Had he heard this teaching he would have realised that his understanding of the laws was very shallow and superficial.

In reality to fully keep God's perfect standards requires not just that obey the external laws, but that our internal heart motivations also align with God's standards. This means that in reality it is impossible to fully keep the law.

Jesus sees that this man is eager and sincere. Even though he has underestimated the extent of the law he is rightly focused on trying to live a life that is pleasing to God. For this reason Jesus felt great love and compassion for him. Before they part the Lord Jesus has just one more piece of vital advice to impart. It is that this rich man must sell all he has, and then taking up his cross follow Christ. You see the Lord Jesus could see that this man had made an idol out of his material possessions. They had taken God's rightful place. His riches came first and God came second. The man was deeply troubled to hear this instruction. He did not want to take this radical step. So sadly he turned away from the salvation offered by Jesus and walked away.

How many today mirror the attitude of this rich young ruler. For whatever reason they do not want to give up the thing that has captured their heart. Unless they repent and turn back to God they will one day feel great sadness at their rejection of Christ's offer of salvation.

Today we continue on with the teaching Jesus gave to the disciples following this incident.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을 복습합니다.

주 예수님이 부자 청년 관원과 가졌던 상호 작용을 살펴본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건은 간략해 보이지만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세 공관 복음서 모두에 등장합니다. 구원에 대해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지난번에 언급했듯이 오늘날 우리가 발견하는 모든 종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의식, 믿음 및 문화는 다양하지만 모든 세계 종교는 한 가지 공통점을 공유합니다. 그들은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행해야 한다는 믿음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언가"는 일련의 규칙이나 전통을 따르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는 특정한 방식이나 특정한 장소에서 예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기 자상에서의 우리의 선행이나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에 뿌리를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슬람에서, 그리고 불교와 힌두교의 "카르마"의 계율에서 이것을 봅니다. 물론 기독교는 매우 다릅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우리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구원을 얻기 위해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만이십니다.

지난 주의 가르침을 간단히 복습해 봅시다.

페레아 지방 어딘가를 걷고 있는 동안 주 예수님께 한 젊은이가 다가옵니다. 그는 보통 부자 청년 관원이라고 불립니다. 지난 주에 언급한 것처럼 이 사실을 알려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을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 그는 재산이 많았고 40 세 미만의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통치자였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그가 회당 평신도 지도자(장로)였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그러한 직책을 맡았다는 것은 그가 대단한 사람이었고 칭찬할 것이 많았음을 암시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자 달려가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한 접근은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에게 상당히 놀라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부자가 달리는 것은 수차스러운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을 찾고 그분께 중요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을 보여줍니다.

그는 영생을 얻기 위해 뭘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합니다. 더 간단히 말해서 그는 구원받기 위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합니다. 그의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한 선생님아여 □ □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우리가 인생에서 물을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들은 □ □ □ □ □ □? □ □ □ □ □ □ 어떻게 될까?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등등 이 청년의 질문은 좋은 질문이고, 예수님은 질문하기에 완벽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남자의 질문에 착오가 있습니다. 그의 실수는 그가 구원받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는 당시의 유대교를 반영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바리새인의 구전을 철저히 지키는 자를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얻은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믿었습니다.

주 예수님은 그 사람이 그분에게 말하는 방식에 조금 놀랐습니다. 어떤 랍비도 "선하다"고 불리지 않았는데 이 형용 □ □ □ □ □ □ □ □ □ □ □ □ □ □ □ □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셨습니다. 어떤 인간도 죄가 없는 존재가 아니므로 어떤 사람을 "선하다"고 부르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 청년은 물론 하나님께 말하고 있었으니 옳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부르십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면서 그를 선하다고 불렀습니다. 그런 다음 주님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두 번째 계명(율법)의 돌판으로 그 사람을 인도하십니다. 첫 번째 세트(1~4)는 수직적 관계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10 개 명령 중 후반부(5-10)는 수평적인 면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들은 우리가 동료 인간과 어떻게

□□□□□□ □□□ □□□□□□.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에 용기를 얻습니다. 그는 13 세 때부터 자신이 율법을 주의 깊게 따르는 데 충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산상 수훈을 들었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가 이 가르침을 들었다면 율법에 대한 그의 이해가 매우 피  
□□□□□□□□ □□□□ □□□□□□. 실제로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을 온전히 지키려면 외적인 법에 순종하는 것만 아  
나라 내적인 마음의 동기도 하나님의 기준과 일치해야 합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것이 불가능  
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간절하고 성실함을 보십니다. 그는 율법의 범위를 과소평가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 □ □ □ □□□□ □ □□□ □□□ □□□□□□ 이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에 대한 큰 사랑과 연민을 느끼셨습니다. 헤  
어지기 전에 주 예수님은 그에게 줄 중요한 조언이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고 십  
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좇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이 사람이 그의 물질적 소유물로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  
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 물질이 하나님의 합당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의 재물이 먼저이고 하나님은 그 다음이었습  
니다. 그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몹시 괴로웠습니다. 그는 이 급진적인 조치를 취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슬프  
게도 그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외면하고 떠났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부유한 젊은 관원의 태도를 반영하고 있습니까? 어떤 이유에서든 그들은 마음을 사  
로잡은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한 그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구원 제  
안을 거절한 것에 대해 큰 슬픔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가르  
침을 계속하겠습니다.

### **23 Then Jesus looked around and said to His disciples, “How hard it is for those who have riches to enter the kingdom of God!”**

As we have seen the rich young ruler was unable to take Jesus's teaching. He loved his material possessions more than he loved the prospect of eternal life. He turned away from the one who offered salvation and walked sadly away. This whole exchange clearly shocked and surprised those around Him. It therefore provides an excellent opportunity for the Lord Jesus to expand the teaching. He will explain to His original hearers, and us about the potential dangers of riches.

There are many ways that we may find ourselves with money or riches. In some cases people are simply born into wealthy families. Such people never know what it's like to be poor and have to struggle. This may at times make them selfish or insensitive to the needs of others who were not born in privilege. Other people acquire wealth through inheritance or gifting. Sometimes this is anticipated or expected at other times it may come as a pleasant surprise. Still others have wealth because they have worked hard. They may have established a business, or designed a product or service that has been successful. These people are often the most grounded because they have known both the good and bad times. They know what it's like not to have riches, so now that they do have wealth they are truly appreciative.

Finally, there may be people who have won their wealth. I am thinking here of people who have won the lottery or some other kind of competition. Often these people are the least well-equipped to deal with a sudden unbelievably large sum of money. They can get caught up in the excitement, and waste their money or be tricked into using it recklessly.

However a person has acquired their money is not the issue here. The Lord Jesus is talking about the great difficulties associated with wealth. He tells the disciples;

### **“How hard it is for those who have riches to enter the kingdom of God!”**

Now it's important for us to recognise that wealth does not exclude a person from salvation (eternal life). Jesus does not say that it is impossible, but rather that it is hard. This means that there will be

people in heaven who were rich during their earthly lives. But what Jesus is saying here is that having riches can be a barrier, hurdle or a handicap. There is a saying which I think carries a great deal of truth. The saying goes as follows.

*“Christian men often become rich, but rich men seldom become Christians.”*

Sadly how true that often is. And that is the key take-away here. Money and riches often give people a false sense of safety and security. It can make them arrogant and proud. They think that they can handle any situation by themselves and therefore do not need God.

### **23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재물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정말 어렵다” 하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본 것처럼 부자 청년 관원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영생보다 자신의 물질적 소유물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는 구원을 제안한 사람을 외면하고 슬프게 떠났습니다. 이 모든 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 분명히 충격과 놀라움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주 예수님이 가르침을 확장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분은 재물의 잠재된 위험에 대해 원래 청중과 우리에게 설명하실 것입니다.

돈이나 재물과 관련해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단순히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난하고 고군분투해야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결코 알지 못합니다. 때때로 그들은 이기적거나 특권 속에서 태어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무감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부를 얻습니다. 때때로 이것은 예상되었거나 아니면 놀라움으로 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업을 했거나 성공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설계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좋을 때와 나쁠 때를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부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으므로 이제 부를 가지게 되었으므로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를 얻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복권이나 다른 종류의 경쟁에서 당첨된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종 이러한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생긴 엄청난 많은 돈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부족합니다. 그들은 흥분에 사로잡혀 돈을 낭비하거나 속임을 당해 무모하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은 부와 관련된 큰 어려움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가”**

이제 재물이 사람을 구원(영생)에서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부자였던 사람들이 천국에 있을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부를 소유하는 것이 장벽 또는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진실을 담고 있는 속담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기독교인 남성은 종종 부자가 되지만 부자가 기독교인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슬프게도 그것은 종종 사실입니다. 그것이 여기서 주요 핵심입니다. 돈과 재물은 종종 사람들에게 잘못된 안정감을 줍니다. 그것은 그들을 오만하고 교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고 따라서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Just a word before we move on about the term “riches.” Many contemporary Christians read this verse and instantly dismiss it. Since they are not considered to be “rich” they assume it doesn't apply to them. What about you are you rich? You would probably say that you are not, but I would disagree. Let me explain why.

According to the World bank extreme poverty is defined as living on less than \$2.15 or 2,500 won per person a day. Let me put that into perspective. The minimum hourly wage in Korea is 9,620 won. How many people do you think are living on less than \$2.15 a day? At the end of 2022 it was estimated that 685 million people around the world were existing in extreme poverty. The predictions for 2030 are that 574 million people, 7% of the global population will be in this situation. My point is this, compared to many around the world you are unimaginably rich. And even compared to the rich young ruler you are considerably richer. If you own a house, a car, a washing machine, a TV and have savings in the bank you are rich. This means that what Jesus is teaching here can, and should be applied universally. Let us continue.

계속 진행하기 전에 "재물"이라는 용어에 대해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절을 읽고 즉시 무시합니다. 그들은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당신은 부자입니까? 당신은 아마도 아니라고 말하겠지만, 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국민층은 1 인당 하루 2.15 달러 즉 2,500 원 미만으로 생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관점에서 생각해봅시다. 한국의 최저 시급은 9,620 원입니다. 하루 \$2.15 미만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2022 년 말에는 전 세계적으로 6 억 8,500 만 명이 극심한 빈곤 상태에 있는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2030 년에는 전 세계 인구의 7%인 5 억 7400 만명이 이런 상황에 처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 □ □ □ □ □ □ □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과 비교할 때 당신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부자입니다. 심지어 부유한 젊은 관원과 비교해도 당신은 훨씬 더 부유합니다. 당신이 집, 자동차, 세탁기, TV 를 가지고 있고 은행에 예금이 있다면 당신은 부자입니다. 이것은 여자의 예수님의 가르침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고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합니다.

**24 And the disciples were astonished at His words. But Jesus answered again and said to them, “Children, how hard it is for those who trust in riches to enter the kingdom of God! 25 It is easier for a camel to go through the eye of a needle than for a rich man to enter the kingdom of God.”**

Jesus' words surprise and shock the disciples. To understand why they were surprised we need to appreciate the two Jewish attitude towards riches. The first and most common view expressed throughout the Old Testament is that wealth and riches come as a blessing or reward from God. God demonstrates his kindness to “good, pious or righteous” people by rewarding them with material rewards. This view is still held by many today. It is certainly true that God does choose to bless certain people at certain times. But it is also true that many godly people are not materially blessed in this life, and equally we see many very ungodly people who receive a great deal in this life.

The second view, less commonly expressed in scripture is to think of the poor as being more pious or godly. The rich by contrast are regarded as ungodly. This understanding derived from the view that in simple poverty people's thoughts and prayers are better focused on God. This is because they are having to rely on God on a daily basis to provide for them. Therefore they are closer, or better connected to Him. The rich by contrast are typically caught up in the carnality of fleshly things. This means that they are less attentive to spiritual matters. Also because of their wealth they are not as reliant upon God for providing for their daily needs. Therefore God is more distant from them.

In this particular instance it is the first notion, the idea that God materially blesses people that is in view here .

The disciples' astonishment lies in trying to reconcile how the rich, who they assume have been blessed by God would have difficulty entering the Kingdom of God. It would be like me saying to you, here's a map to find my house, the money for a taxi to get there, and the key to my front door. And then me saying you will not be able to find and enter my house. It just doesn't compute. The disciples are puzzled. So Jesus explains it to them again.

He refers to the disciples as “children.” This is the only time in the gospels that Jesus refers to the

disciples in this way. He uses it to highlight their spiritual immaturity, they are like little children that need to have things simply explained. He again emphasises just how difficult it is for a rich person to get into heaven. He does this by using a very vivid and well known proverb involving a camel and the eye of a needle. The proverb has been paraphrased in the following way.

*"It is easier to thread a needle with a great big camel than to get into the kingdom of God when you are bursting with riches."*

Over the centuries people have tried to explain this parable in a variety of ways. There is one school of thought that says that what we are reading is a scribal error. In Greek the words for camel and rope are very similar. *kamēlos* means a camel and *kamilos* means a rope. So with just one change in vowel you get a completely different meaning. So the argument is that a scribe made an error and instead of writing "rope" inadvertently wrote "camel." I don't think that this is what happened. But either way it amounts to the same thing. Neither a rope nor a camel can fit through the eye of a needle.

You may have heard people say that what Jesus is referencing here is a gateway that led into the city of Jerusalem. It was a very narrow gate known as the "Needles eye gate." For a camel to enter it had to be unloaded, knelt down and then moved through on its knees. It would be nice if this were the case but sadly we have no evidence of such a gate existing in the time of Jesus. There is in fact no mention of this gateway until the medieval period.

What the Lord Jesus is actually doing is using hyperbole to emphasise a point. The camel was the largest animal known to people at that time. They would have been unfamiliar with elephants. The eye of a needle is of course very small. Only a thin piece of thread will fit through. So the Lord Jesus is just hammering home how impossible it is for a rich person to enter the Kingdom of God. A real camel cannot pass through an actual needle's eye, and in human terms the wealthy cannot pass through the heavenly gates because the riches they are carrying are simply too great. Let us read on.

## **24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라자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애들이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정말 어렵다 25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을 놀라게 합니다. 그들이 놀란 이유를 이해하려면 재물에 대한 두 유대인의 태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전체에 걸쳐 표현된 첫 번째이자 가장 일반적인 견해는 부와 재물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들에게 물질적 보상을 주심으로 그들에게 호의를 베푸십니다. 이 견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정한 때에 특정한 사람들을 축복하기로 선택하신 것은 확실히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인생에서 물질적인 축복을 받지 못하거나 반대로 매우 불경건한 사람들이 많은 재물을 얻습니다.

성경에서 표현되는 두 번째 견해는 덜 일반적이긴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더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자는 경건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이해는 단순히 빈곤 속에서 사람들의 생각과 기도가 하나님께 더 잘 집중된다는 관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분과 더 가깝거나 더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부자들은 일반적으로 세속적인 것들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영적인 일에 주의를 덜 기울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들의 부 때문에 그들은 매일의 필요를 공급하는 데 있어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더 멀리 계십니다.

이 특정한 경우에 여기에서 고려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물질적으로 축복하신다는 생각인 첫 번째 개념입니다.

제자들의 놀라움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부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길 ‘여기 내 집을 찾을 수 있는 지도가 있고 거기에 갈 택시비

가 있고 □ □□□ □□□ □□□□ 하지만 당신이 내 집을 찾지 못하고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말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당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설명하십니다.

그분은 제자들을 “아이들”이라고 부르십니다.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이런 식으로 언급하신 유일한 경우입니다. 그 단어는 그들의 영적 미성숙함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설명이 필요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그는 낙타와 바늘귀와 관련된 매우 생생하고 잘 알려진 속담을 사용합니다. 속담은 다음과 같이 의역되었습니다.

*“너희가 재물로 가득차 있을 때 엄청 □ 낙타로 바늘에 실을 꿴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 비유를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은 필사상의 오류라고 말하는 학파가 있습니다. 그리스어에서 낙타와 바늘이라는 단어는 매우 비슷합니다. kamēlos 는 낙타를 의미하고 kamilos 는 바늘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모음 하나만 바꾸면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사기관이 실수를 해서 "바늘"을 쓰는 대신 실수로 "낙타"를 썼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견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그것은 같은 것입니다. 바늘도 낙타도 바늘귀에 들어갈 수 없다.

당신은 여기에서 예수님이 언급하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 도시로 통하는 관문을 말하는 것이라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Needles eye gate"로 알려진 매우 좁은 문이었습니다. 낙타가 들어가려면 짐을 내리고 무릎을 꿇은 다음 무릎을 꿇은 채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좋겠지만 예수님 시대에 그러한 문이 존재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 □ □ 세 시대까지는 이 관문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주 예수님이 실제로 하시는 일은 요점을 강조하기 위해 과장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낙타는 당시 사람들에게 알려진 가장 큰 동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코끼리에 익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바늘귀는 매우 작습니다. 얇은 실 조각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 낙타는 실제 바늘귀를 통과할 수 없으며,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부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너무 커서 하늘의 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계속 읽어 보십시오.

## **26 And they were greatly astonished, saying among themselves, “Who then can be saved?”**

Again the disciples are left amazed and astonished. We might picture them whispering among themselves. Their concern is as follows, with such high, impossible standards how will any of them enter the Kingdom? As I mentioned before wealth was thought of as demonstrating God's blessing to the righteous. So in the Jewish mindset of the day the rich young ruler was seen as being very close to God. He was an automatic choice for a place in God's Kingdom.

If we think about the works based system that operated at this time we can appreciate why they thought this. Sacrifices at the temple were a regular part of Jewish life. The sacrifice atoned for sin and brought you back into the right relationship with God. However buying cattle and sheep to sacrifice was costly. Also making regular visits to the temple was difficult and time consuming. However, if you were wealthy you could afford to sacrifice regularly, and offer high quality sacrifices. This then in the Jewish mindset meant that you were closer to, and more favoured by God.

Also the wealthy had disposable cash.

They were not living the hand to mouth existence of the poor. They could afford to be charitable and give some of their wealth to the poor. The rabbis even taught that with alms (charity) a person was able to buy their redemption. One writing taken from Tobit says the following;



*“It is good to do alms rather than to treasure up gold, for alms deliver from death, and this will purge away every sin.”*

When we understand this we can appreciate the disciples confusion. If this rich man who seemingly did everything right and good could not be saved what hope was there for anyone. That of course is the right question. If perfection is the standard and none of us can be perfect how can any of us expect to be saved. Fortunately as we will soon see salvation does not depend upon us. Let's continue.

## 26 그러자 제자들은 더욱 놀리며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하고 수군거렸다

다시 제자들은 놀라움과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서로 속삭이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게 높고 불가능한 기준으로 그들 중 누가 왕국에 들어갈 것인가? 앞서 언급했듯이 부는 의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유대인 사고방식에서 부자 청년 관원은 하나님과 매우 가까운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왕국의 자리를 당연히 차지할거라고 믿어졌었습니다.

당시 행위에 근거한 제도를 생각해보면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알 수 있다. 성전에서의 희생은 유대인 생활의 정기적인 부분이었습다. 그 희생은 죄를 속죄했고 당신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그러나 제물로 바칠 소와 양을 사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또한 성전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것도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부유하다면 정기적으로 희생할 여유가 있고 양질의 희생을 바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또한 부자들은 일화용 현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처럼 근근이 생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선 활동을 할 여유가 있었고 그들의 부의 일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습니다. 랍비들은 자선으로 자신의 구속을 살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Tobit 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구제를 하는 것이 금을 쌓아 두는 것보다 나음이니 구제는 죽음에서 건지며 이로써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리라.”*

이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제자들의 혼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을 옳고 선하게 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부자가 구원받을 수 없다면 누구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물론 올바른 질문입니다. 완벽이 표준이고 우리 중 누구도 완벽할 수 없다면 어떻게 구원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까? 다행스럽게도 곧 알게 되겠지만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 있지 않습니다. 계속합시다.

## 27 But Jesus looked at them and said, “With men *it is impossible*, but not with God; for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This is a really powerful bible verse. It's one most of us are familiar with, and quote often. The Lord Jesus fixes His eyes upon the disciples. He wants their undivided attention. He affirms their understanding of what He just said. Humanly speaking it is impossible for us to earn or merit our own salvation. As I often say this is because the standard is perfection, and we are imperfect people. But, fortunately for us our salvation does not depend on us. You see Salvation is, has always been, and will always be a divine accomplishment. It is God and only God who saves. This means it lies entirely out of our hands. It is in fact achieved through the perfect atonement and sacrificial death on the cross of the Lord Jesus Christ.

God chooses a people to save, and we are saved by an act of God's grace. This means that the impossible is indeed possible with God. God can, if He desires save the most wicked serial killers, mass murderers, rapists and other wicked people. He chose to save you and me and just think how wicked and depraved we are, how undeserving of God's mercy. And yet God makes new creatures of us. He makes us who are incompatible become compatible for entry into His glorious Kingdom.

Let us read on.

## 27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시며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정말 강력한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대부분이 잘 알고 있고 자주 인용합니다. 주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라보십니다. 그들의 전적인 관심을 원합니다. 그분이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그들의 이해를 확인하십니다. 인간적으로 말해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우리의 공로를 통해 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기준이 완벽하기 때문이고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 있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구원은 항상 그랬지만 앞으로도 항상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분입니다. 이것은 그것이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사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완전한 속죄와 희생적인 죽음을 통해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실 백성을 선택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에게는 참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원하신다면 가장 사악한 연쇄 살인범, 대량 살인자, 강간범 및 기타 사악한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나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셨고 우리가 얼마나 사악하고 타락했으며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십니다. 합당하지 않은 우리를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합당하게 만드십니다. 계속 읽어 보십시오.

## 28 Then Peter began to say to Him, “See, we have left all and followed You.”

Peter, who else chimes in at this point. Once again he is most likely speaking up as the spokesperson for all the disciples. He is referring back here to Jesus' encounter with the rich young ruler. This man had walked sadly away from Jesus unwilling to give up his great wealth to follow the Lord. By contrast the disciples had given up all they had to follow Christ. They had left their livelihoods, families and friends in order to follow Jesus.

So Peter wants to know what's in it for them? What reward do they have to look forward to? It's a very commercial or transactional way of looking at the Christian life. It is encapsulated in the idea that if I do something “good” for God He then owes me something in return. I'm sure we have all been guilty of this way of thinking in our Christian lives. If I regularly go to church, pray, read the bible and try and live a moral life what can I hope for in return. I think that I can expect a nice juicy reward from God.

So Peter was guilty once again of thinking in physical, not spiritual terms. He was again thinking of an earthly kingdom with earthly rewards. We should however not be overly critical of Peter. How often do contemporary Christians think they ought to be blessed by God in the here and now. We have a whole movement in the church that teaches people that they can claim God's blessings now. The movement is known as the “Prosperity gospel movement” or the “Name it and claim it movement.” Let me be clear. God may, in His grace choose to bless us in a multitude of ways whilst we are living on earth. This may be in material ways. He may allow us to amass riches and live comfortably.

Equally He may bless by just sustaining our lives and providing us with our daily needs. There are therefore no guarantees. We have no right to expect or demand anything from Him. Let us see how the Lord Jesus responds to Peter.

## 28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하자

이 시점에서 피터가 말합니다. 다시 그는 모든 제자들의 대변인으로 말하고 있을 가능성이 큼니다. 그는 여기서 다시 부자 청년 관원과의 예수님의 만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큰 재산을 포기하지 않고 슬프게도 예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대조적으로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생계와 가족, 친구를 버렸던 것입니다.

[illegible]

마찬가지로 그분은 단지 우리의 목숨을 유지하고 우리의 일상적인 필요를 공급함으로써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어떤 것도 기대하거나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봅시다.

**29 So Jesus answered and said, “Assuredly, I say to you, there is no one who has left house or brothers or sisters or father or mother or wife or children or lands, for My sake and the gospel’s, 30 who shall not receive a hundredfold now in this time—houses and brothers and sisters and mothers and children and lands, with persecutions—and in the age to come, eternal life. 31 But many *who are* first will be last, and the last first.”**

The answer the Lord gives to Peter and the other disciples is tender and mild. Perhaps they deserved a rebuke for being selfish and only thinking of their own gain, but on this occasion one is not given. The Lord Jesus assures His disciples that no one who follows Him will ever lose what is really important. Whatever is given up for Him, or for His sake will be returned many times over. It is worth remembering that all who sacrifice for the Lord will be rewarded. However we must remember that God's way and timing of rewarding may not match up with our ideas of timing and being rewarded.

Jesus speaks here of a hundredfold return (reward) in “this life” and in the “age to come.” In **the age to come** is simple enough to understand. He is talking about the rewards and treasures stored up for us in heaven. But what about the **now in this time** reference? Is He saying that we will literally receive 100 houses, mothers, brothers and sister? Of course not. What He is referring to here is new and deeper kinds of relationships we will enjoy as part of the new Kingdom community. Or to put it more simply he is referring to the church age which will shortly begin. The church community is supposed to be like a family. That is why we refer to each other as brothers and sisters. We are supposed to care and provide for each other. Sadly the modern western church does not always operate in this way. Today people often seem reluctant to make real connections with others in the church. They seem happy to rush off as soon as the time of structured worship is over. They are reluctant for whatever reason to engage in the informal fellowship that follows the service. What wonderful opportunities are lost when we do this. I encourage you now take a look around. These are your brothers and sister. These are the people with whom you will share eternity.

The Lord Jesus goes on to tell us that as His followers there will be persecutions and difficult times. We are grateful to God that here in South Korea we do not face religious persecution. As we know many around the world do face persecution for their faith. Those that are persecuted for their faith can take some solace in knowing what awaits them. All those called by God and who have put their faith in Christ have the reward of eternal life to look forward to.

Jesus closing remark is centered on our attitude or response to discipleship. He tells the disciples, **But many *who are* first will be last, and the last first.** If I stood in front of a class of students and told them I wanted to give them some prizes for studying hard they would be very excited. If I then said who want to get the prize first what would happen? There would of course be a great clamour, there would be pushing and jostling in their eager desire to get the prize before their friends. No one would want to get the prize last.

The disciples saw the rich young ruler as standing first in line to receive God's prize. They saw themselves as standing at the end of the line. Jesus corrects their view.

God is judging from the perspective of eternity. He is not bound by the human appearance of things. In His view those that have everything from an earthly viewpoint may not be first in line. They may be last. Equally, the people we may think are at the end of the line, the poor, the weak and the marginalised may be first in God's eyes. It is these people God will reward first. That should serve as a wonderful encouragement to us.

Next week Lord willing we will see Jesus make His third prediction about what is to happen in Jerusalem.

29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 □ □ □ □ □ 나와 복음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30 이 세상에서 그 모든 것을 백 배나 받고 아울러 핍박도 받을 것이며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31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을 것이다.”

[illegible]

예수님은 여기에서 "이 세상"과 "□□"에서 백배의 보답(보상)을 말씀하십니다. **다기를 시대**는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 하늘에 쌓아둔 상급과 보물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은 뭘 의미할까요? 문자 그대로 100 채의 집, 어머니, 형제, 자매를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당연히 아닙니다. 그가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왕국 공동체의 일부로서 누릴 새롭고 더 깊은 종류의 관계입니다. 또는 더 간단히 말해서 그는 곧 시작될 교회 시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가족과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형제자매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서로를 돌보고 공급해야 합니다. 슬프게도 현대 서구 교회가 항상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종종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진정한 관계를 맺는 것을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구조화된 예배 시간이 끝나자마자 달려 나갑니다. 그들은 어떤 이유로든 예배 후 비공식적인 교제에 참여하는 것을 꺼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얼마나 놀라운 기회를 잃게 됩니까? 지금 주위를 둘러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당신의 형제자매입니다. 이들은 당신과 영원을 함께할 사람들입니다.

주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분을 따르는 자들로서 박해와 어려운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에서 종교적 박해를 받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데서 어느 정도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고대하는 영생의 상급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마무리 말씀은 제자도에 대한 우리의 태도나 반응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첫째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첫째 되는 자가 많으라** 제가 학생들에게 열심히 공부한 것에 대해 상을 주겠다고 말하면 매우 기뻐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누가 먼저 상을 받고 싶냐고 물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친구들보다 먼저 상

을 받으려고 밀고 당기는 큰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아무도 상을 마지막에 받고 싶어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자 청년이 하나님의 상을 받기 위해 맨 처음 줄을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줄의 끝에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견해를 바로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영원의 관점에서 심판하십니다. 그는 사람의 외모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의 관점에서는 지상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은 첫 번째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줄의 맨 끝에 있을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즉 가난한 사람, 약자, 소외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에는 첫 번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먼저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훌륭한 격려가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 세 번째로 예언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 **Things to think about**

I have two comments to make from today's passage of scripture

#### **1 What are you relying on?**

Recently the world was gripped by the tragic saga of the submersible Titan that went down to examine the wreck of the Titanic. The submersible was to make the 4000-metre descent in around two hours. However, after one and a half hours radio contact was lost and those in the service ship were effectively cut off. We now know that the Titan suffered a critical implosion and all five people aboard were killed. There has been much criticism of the submersible itself and the way it was constructed. It appears as if they relied on substandard parts or bits adapted from other things. For example the steering of the vessel came from an adapted video game controller. We may never know exactly what happened, but I think we can safely say that they relied too much for their safety on materials and systems that were inadequate.

The rich young ruler and the other Jews of his day relied upon their wealth and riches. These they believed put them first in line for God's salvation. How wrong they were. As I mentioned before any works, schemes or plans devised by man are destined to fail. If we are relying on our own efforts or good works we are destined for great disappointment.

It is God alone who saves. He alone makes salvation possible. So let us put our faith and trust in Jesus Christ alone. He is the one on whom we must rely.

#### **1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최근 세계는 난파선 타이타닉호를 보기 위해 해저로 내려간 타이탄호의 비극적인 이야기에 사로잡혔습니다. 잠수정은 약 2 시간 만에 4000 미터를 내려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1 시간 30 분 후 무선 연락이 끊겼고 잠수정에 있던 사람들은 사실상 두절되었습니다. 우리는 타이탄호가 치명적인 내파를 겪었고 탑승한 5 명 모두가 사망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잠수정 자체와 제작 방식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마치 표준 이하의 제품이나 다른 것에서 개조된 부품을 사용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 선박의 조종은 개조한 비디오 게임 컨트롤러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들이 안전을 위해 부적합한 재료와 시스템에 너무 많이 의존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부유한 젊은 관원과 다른 유대인들은 그들의 부와 재물에 의존했습니다. 이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의 첫 번째 줄에 선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틀렸는지요. 앞서 말했듯이 사람이 고안한 계획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선행에 의존한다면 큰 실망을 안게 될 것입니다.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분만이 구원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과 신뢰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두도록 합시다. 그분은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입니다.

## **2 First or last?**

What are your feelings about queues? Like me I'm sure you dislike them. Imagine how much of the precious time God has given us has been wasted standing in line. Wouldn't it be nice if we never had to queue again, or if there was a queue that somehow or other we could always be first.

We learnt today that God standards for judging who will be rewarded does not match with our human expectations. We are conditioned to think that the rich, the privileged and the important are first in line. God says this is not the case. Those the world judges as being first may be last in God's judgement. Those that are last in the world may be first and rewarded greatly in God's Kingdom. This then teaches us an important lesson in what God values. God does not value selfish greed and people who lord it over others. He is pleased by those who joyfully make themselves last. People who are humble and sacrificial, those in other words who come to Him as servants. Let us learn and be joyful in being last.

## **2 첫째 또는 마지막?**

줄서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처럼 여러분도 그것을 싫어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 중 얼마나 많은 시간을 줄을 서서 낭비했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시는 줄을 서지 않아도 된다면, 또는 어쨌든 우리가 항상 첫 번째가 될 수 있는 대기열이 있다면 좋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상을 받을 사람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인간의 기대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부자, 특권층, 중요한 사람들이 우선 순위에 있다고 생각하도록 길들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첫째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나중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나중 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가 되고 큰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소중히 여기시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이기적인 탐욕과 남 위에 군림하는 자를 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가까이 마지막이 되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겸손하고 희생적인 사람들, 다시 말해 종으로서 그분께 나아오는 사람들입니다. 꼴찌됨을 배우고 기뻐합니다.

